

한미, 고강도 훈련 함께하며 최상의 팀워크 입증

육군6보병사단 - 미8군

군사경찰부대 연합 대테러훈련

육군6보병사단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대와 미8군 19지원사령부 94군사경찰대대는 2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 군사경찰부대 연합 대테러훈련을 했다.

한미 장병 80여 명이 참가한 훈련은 팀 단위 근접전투훈련(CQB)으로 팀워크와 도시지역작전 대테러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CQB는 시가지 등 25m 이내에서 소규모 병력이 사용하는 진압기술로, 테러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든 전술적 행동을 말한다. 양국 장병들은 팀을 이뤄 건물 수색·확보, 내부 소탕, 인질 구출, 분대 규모 테러범 제압 등 주어진 상황에 맞춰 고강도 훈련을 펼쳤다.

한미 군사경찰대대 장병들은 능숙하게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테러범의 위치를 공유하고 숨어 있던 분대 규모의 테러범을 단숨에 제압했다. 인질을 구출한 뒤 건물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김재우(중위) 군사경찰대대 특임소대장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공유하게 된 미 군사경찰대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러 상

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조수연 기자

▲ 2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군사경찰부대 연합 대테러훈련 중 한미 장병들이 도시지역 건물 내부에 침입한 적을 수색하고 있다. 부대 제공

강원도 철원군 735고지 일대 유해발굴 개토식

육군2포병여단, 장병 220여 명 투입
호국영령 닛 기리고 성공 작전 기원

육군2포병여단은 25일 예하 천룡대대 연병장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

박진원(준장) 여단장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철원군재향군인회장, 강원서부보훈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의 닛을 기리고, 성공적인 유해발굴작전을 기원했다.

다음 달 4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작전에는 천룡대대 장병 220여 명이 투입된다. 작전을 펼치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적근산 735고지 일대는 6·25전쟁 당시 국군2사단이 중공군 제27군을 맞아 격전을 벌인 현장이다. 여단은 지난 2000년부터 유해발굴을 진행해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총 225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는 부대에 마련된 임시봉안소에 안치되며, 11월 중으로 예를 갖춰 군단 합동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송동규(중령) 천룡대대장은 “조국을 위



25일 천룡대대 연병장에서 진행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부대 제공

해 적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영웅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공군17전비, 조종사 구조·화재진압 절차 숙달

비상 상황 대비 소방구조훈련
“차질 없는 임무수행에 최선”

공군17전투비행단(17전비)은 25일 기지 내 활주로에서 항공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소방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진압 능력 향상과 조종사 구조 절차 숙달을 중점으로 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구조중대 소방차 4대가 투입됐다.

이날 훈련은 활주로 위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부여되며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구조중대는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항공기 피해 정도와 조종사 상태 등을 파악했다.

장병들은 풍향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차를 배치하고 소화약제를 기체에 집중적으로 살포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어 안



25일 진행된 항공기 소방구조훈련에서 소방구조중대 장병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부대 제공

전을 확보한 뒤 캐노피를 개방해 조종사를 구조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

훈련을 주관한 이승원(중령) 공병대대장은 “항공기 사고는 부대 전력 운용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비행단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육군21보병사단 포병여단 왕포대대 장병들이 수송부 차량 무사고 7500일 달성을 자축하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21보병사단, 차량 무사고 금자탑 7500일

육군21보병사단 포병여단 왕포대대 수송부가 25일 차량 무사고 7500일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왕포대대는 이날 대기록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열고, 무사고 달성에 이바지한 근무 유공자에게 사·여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부대는 K9 자주포 18문을 비롯해 총 78대의 차량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특히 부대의 핵심 장비인 K9 자주포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3주 동안 부대 자체 ‘조종수 집중 양성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높은 안전의식 함양 △지형과 기후에 맞는 1대1 맞춤형 운전 교육 △차량 운전병 취침 여건 보장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백일영(중령) 왕포대대장은 “무사고 전통을 잇기 위해 안전 또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박상원 기자